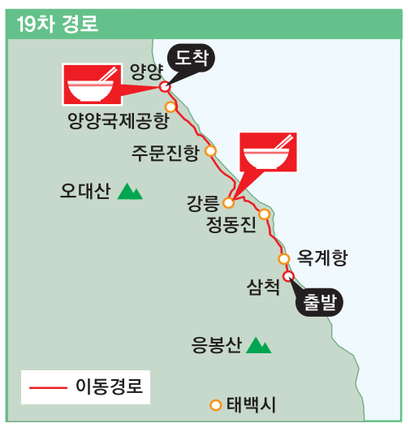
허영만의 '자전거 식객'

19 삼척~양양 〈하〉



허영만이 그린 한 컷 풍경

한파경보가 내려진 상황이고 10분 거리에 펜션, 모텔이 즐비한데 추위를 무릅쓰고 강릉 병산의 솔숲에서 야영을 결행한 것은 소나무들의 씩씩한 모습에 반했기 때문이었다. 안면송으로 대표되는 서해안의 해송이 가늘고 길게 뻗어올라가 여성적이라면 동해안의 해송은 줄기와 가지가 튼실하고 두꺼워 남성적이다. 이날 밤은 바람이 몹시 불었는데 솔숲은 거의 완벽하게 바람을 막아줘 우리의 잠자리는 아늑했다.

영하의 매서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문진항 어시장은 삶의 활기가 가득했다. 자전거 식객들 앞에서 아침에 잡아온 문어를 펼쳐보이는 한 상인. 동해안은 지금 문어가 제철이다.

쫄쫄 굶은채 맞이한 막국수·수육 만찬…

목덜미 파고드는 삭풍에
백사장서 날리는 모래바람까지

천근만근 무거운 페달 끌고
마침내 주문진항 도착

강릉 경포대를 지나 주문진을 향하는 북행길에서 바람은 돌파하고 극복해야 할 큰 적(敵)이었다. 한파경보가 해제되며 기온이 전날에 비해 다소 올랐다고는 하지만 영하 15도였다.

맹추위를 무릅쓰고 강릉 병산 솔숲에서 야영하고 난 뒤여서 목덜미를 파고드는 삭풍에서 적의가 느껴졌다.

행여 체온 저하증에 걸릴 새라 평소보다 RPM을 30%쯤 높여 달렸지만 땀 한 방울 나지 않았다. 게다가 정면에서 불어오는 북풍을 뚫고 달리자니 페달은 천근만근 무겁다. 경포해변을 한가롭게 거니는 관광객들을 보니 대체 우리가 이 겨울에 자전거를 타고 무슨 생고생인가 싶다.

그러나 바람이 자전거 나그네들을 괴롭히는 방법은 그것뿐이 아니었다. 백사장을 지날 때마다 바람에 날린 모래가루가 입으로, 코로 마구잡이로 들어와 사막에서 모래폭풍을 만난 것과 진배없었다. 쉴 때마다 모래로 지근거리는 입을 물로 헹궈야 했고 신발을 벗어 털면 모래가 한 줌 가까이 나왔다.

경포대 북쪽 5km 지점의 사천진에서 잠시 쉬면서 길을 확인하기 위해 태블릿PC로 위성지도를 들여다 보다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다.

2010년 9월 강화도에서 집단가출 자전거 전국일주를 시작할 당시 강화도 최북단이 북위 37도 49분이었는데 지금 이 자리, 사천진 역시 37도 49분.

허영만 화백을 앞세우고 구불구불한 대한민국 해안선 2400여km를 자전거로 달려 마침내 17개월 만에 출발점의 위도로 복귀한 것이다.

허영만 대장을 비롯한 대원들은 사천 해변에 철썩이는 파도를 바라보며 깊은 감회에 젖었다. 강화도, 인천, 대부도, 당진, 태안, 군산, 목포, 완도, 제주도, 장흥, 보성, 여수, 남해, 거제도, 부산, 울산, 포항, 울릉도, 울진, 삼척, 강릉… 지도상에 표시된 지나온 길들이 새삼스럽다.

가을에 강화도를 떠난 우리들은 태안반도에서 겨울을 맞았고, 군산에서 봄꽃을 보고, 땡볕이 작렬하는 여름에 뜨거운 남도를 지나 부산의 가을을 통과해 동해를 북상하는 지금 두 번째 겨울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맹추위, 추억의 국화빵 온기로 지우다

오전 10시 30분, 주문진에 도착했다. 동해안에서 손꼽히는 어항답게 주문진항은 자전거를 타고 통과하기 어려울 만큼 북적인다.

좌판에 생선을 펼쳐놓고 소리 높여 손님을 부르는 상인들, 주말을 맞아 타지에서 찾아온 관광객들까지 가세한 어시장 골목은 활기가 넘쳐 그저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에너지를 얻는 기분이다.

복잡한 어시장을 빠져나와 선창가의 인적 드문 뒷골목으로 들어서던 허영만 대장이 갑자기 자전거를 세웠다. 허대장을 멈추게 한 것은 60대 노부부가 국화빵을 구워 파는 노점상.

밀가루 반죽이 노릇하게 구워지는 고소한 냄새와 달콤한 단팥 내음에 이끌린 것이다. 1000원에 4개짜리 국화빵과 달궈진 빵틀의 따스한 온기는 추위에 지친 자전거 나그네들에게 커다란 위안이었다.

해안도로는 남애 부근부터 열악해졌다. 7번 국도가 워낙 바다 쪽으로 붙어있는 탓에 중간중간 어쩔 수 없이 자동차가 쌩쌩 달리는 국도를 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도 어떡하든 7번 국도를 피하려 마을길이 보인다 싶으면 일단 들어가 본다.

그 동안 경험에 의하면 이럴 경우 보통은 좀 험한 길을 멀리 돌아가더라도 대개 길이 연결되기 마련이었지만 이 곳에서는 사정이 달랐다. 곳곳에 군사용 철조망이 설치되어있어 아예 통과 할 수 없는 곳이 대부분이었던 것이다.

막힌 길을 만날 때마다 네비게이터 역할을 맡은 내게 대원들의 원망 섞인 눈길이 쏟아지곤 한다.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려면 미심쩍을 때마다 지도를 확인하면 될 일이지만 수많은 갈림길에서 일일이 자전거를 멈추고 배낭을 벗고, 태블릿PC를 꺼내보는 것이 맘처럼 쉽지 않아 직관에 의지할 때가 더 많다.

결국 남애항과 기사문항 사이의 잔교마을에서 지도를 확인하지 않은 대가를 톡톡히 치렀다. 7번국도 옆으로 한적한 마을길이 기세좋게 뻗어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번에도 직관을 믿고 핸들을 돌린 것이 동티가 됐다.

처음에 들어섰던 길이 해안 암석지대에 막혀 끊기자 우회해 마을 뒤 깨밭을 가로질렀으나 잡풀이 우거진 야산에서 길은 더 이상 흔적이 없었다. 결과적으로 여기서 다시 들어왔던 길을 되짚어 나가야 옳았다.

그러나 야트막한 야산 넘어 7번국도가 빤히 보이는지라 호기롭게 직진을 결정했다. 자전거를 끌고 메고 10여분이 걸려 탈출하는데 성공했지만 문제는 옷에 온통 달라붙은 도깨비바늘이었다. 길가에 자전거를 기대어 놓고 투덜거리며 한참동안 도깨비바늘은 떼어내야 했는데 워낙 많이 달라붙은지라 완벽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후 우리는 채 제거되지 않은 도깨비바늘 때문에 사타구니와 오금이 따끔거려 애를 먹으며 제대로 라이딩을 할 수가 없었다. 도깨비바늘을 떼어내는 동안 우리와 같은 방향으로 7번 국도를 북상 중인 두 명의 라이더를 만났다.

편집 | 민성기 기자 min3654@donga.com 트위터@b612min

몸에 좋다는 건강제품은 수 없이 많지만
우리 몸을 보호하는데 "녹용" 만한 것이 또 어디있겠습니까?
※마르고 허약한 성장기 어린이, 청소년에게 더욱 좋아... ※효도상품, 선물용으로 인기!!
☑ 생각지도 못할 전무후무한 가격!
☑ 이것이 진짜 국내산 225g짜리 녹용진액이다.
☑ 맛이 다르고 2~3일만 지나도 몸이 말을 해줄 것이다.
이것이 국내산 "225g 녹용진액"이다!!
녹용은 흩어진 생체리듬을 복원시키는데 도움을 주며 작용하는 다양한 물질들이 집중적으로 들어 있고 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기록이 있으며, 에너지가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하고 힘차다. 예로부터 산삼과 그 효능을 같이 하였으므로 고대 황실가에서 보양식과 강장식으로 즐겨 애용해 온 장수의 상징이었다.
이런 분들께 권해드립니다.
• 평소에 체력보강을 원하는 분
• 노약자 기력보강
• 마르고 허약한 성장기 어린이
• 조금만 신경써도 피로가 빨리 오는 분
• 출산 후 산후조리 하는 산모
• 수술 후 회복을 기다리는 분
• 자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 분
• 속이 냉하거나 손·발이 차가운 분
• 업무상 술자리가 많은 분
• 부부활력을 원하시는 분 등등...
이게 정말 225g이 들어간 녹용진액이 198,000원 맞습니까?
맛이 다르다! 경남합천 농축산 영농조합에서 출시한 녹용을 드셔보신 분이라면 한결 같이 하는 이야기이다. 녹용 225g 이 들어간 녹용제품은 시중에 어디를 가도 30만원 이상은 주어야 구입할 수 있다. 225g 이 들어간 녹용 1박스 (70ml X 60포)를 19만8천원에 공급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어느 곳을 찾아보아도 이 가격에는 구하기 어려울 것인데 하지만 경남합천 농축산 영농조합이 직접 제조, 판매하기 때문에 가능한 가격이다. 원료공급이 영농조합과 직거래를 통해 이뤄지고 합천에 소재한 자체 공장에서 48시간 무균 증탕을 거쳐 생산되기 때문에 맛이 진하고 부드러워 한 번 드셔 보신 분들은 반드시 다시 찾게 되는 것이다.
확진인품
새봄은 녹용의 계절!
▸ 지치고, 피곤하고, 만사가 귀찮고...
▸ 정기(精氣)를 보강해주는 "녹용"
정확한 함량과 원산지를 보증합니다!
산삼과 녹용은 가장 귀하고 값비싼 보양식으로 알고 옛부터 우리조상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힘들고 허약할때 이를 복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값이 너무 비싸 서민들은 접근하기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를 딱하게 여긴 경남·합천 농축산물 영농조합에서 이번에 파격적인 가격으로 녹용 225g 을 넣고 48시간 무균 증탕 처리하여 70ml X 60포 = 1박스에 198,000원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녹용 225g 의 정확한 함량과 원산지를 당 조합이 책임지고 보증해 드립니다.
경남합천 농축산업영농조합
조합장 안병철
무균 증탕시설이 완비된 합천 공장
품질보증서
제품구성
70ml X 60포 = 1 box
국내산 녹용225g이 아니라면 법적처벌을 감수하겠습니다.
정확한 녹용225g 제품입니다.
국내산 녹용 225g
설명이 필요 없다. 직접 맛을 보시고 느껴보십시요...
경제가 너무 어려워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이든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더라도 건강이 최고라는 말이 있듯이 건강해야 천하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모든 분들에게 건강 관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말도 않되는 값비싼 녹용 225g 을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녹용 드시고 힘내시라고 조합장 안병철 이라는 이름과 명예를 걸고 사심없이 심전대보탕에 들어가는 재료를 더하여 진하게 달였습니다.
서두르세요... 무한정 공급하지 못하는 가격입니다.
시중에서는 이가격에 결코 구입할 수 없는 제품이고 우선 맛을 보면 다른 녹용 제품들과 확연히 다른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거르지 마시고 잘 드신 후 건강한 하루 하루를 보내십시요. 한번 구입해 보신분의 재주문과 입소문으로 신뢰와 사랑을 듬뿍받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녹용진액을 치시면 각 언론사의 보도자료 [뉴스]를 보실수 있습니다.
힘들고, 지친 몸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녹용! 검색창에 녹용진액 을 쳐보세요
경남합천 농·축산업 영농조합
2세트 구입하신분들께 특별사은품 증정
한달분 236,000원 ➡ 198,000원
구입문의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낙민리 산 108번지
1600-7746
(농협) 이담숙 : 302-0096-905071